

세대를 이어주는 책읽기의 유대감

김성희 | 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3년 전, 시골로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아이가 입학할 초등학교에 가봤다. 경기도지만 하루에 버스가 열 번도 안 지나가는 외진 마을로 이사하는 일이 장차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내와 나는 걱정이 우려했다. 아직도 그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정에 불을 밝혀놓은 듯 화사하게 물든 은행나무와 운동장 절반을 채우는 넉넉한 그늘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플라타너스를 보며 막연한 안도감을 느꼈다.

울 초 큰 딸아이는 입학을 하자마자 학교 생활을 '노도 없이 배를 저어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해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그래도 요즘은 그러저럭 적응해 가는 눈치다.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작은 시골 학교다 보니 담임선생님이 잠무처리로 너무 바빠 자습할 때가 많다고 했다. 다행히 책을 좋아하는 딸애는 자습시간에 학급문고를 마음껏 읽는 일이 학교 생활의 새로운 즐거움이 됐다. 교실에 책 1백권이 새로 들어왔다고 뿔 듯이 기뻐하는 아이를 보며, '고전 읽기 경시대회'처럼 책도 무슨 운동 시합하듯 읽히던 우리 어린 시절과는 달리 그래도 사회환 경이나 교육여건도 많이 나아졌으려니 믿고 싶다.

아이가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를 읽고 와서 제제와 슈르르카에 대해 이야기할 때나 《비밀의 화원》을 읽고 집 뒤 참나무 숲에 자기만의 비밀장소를 꾸미는 것을 볼 때면 얼핏 기시감이 느껴진다. 내 생애 언젠가 한번은 지나쳤을 그 경험들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딸아이를 보며 새삼 세상살이 함께 하는 길동무에 대한 끈끈한 유대감마저 느꼈다.

나에게도 책읽기는 탈출구였다. 고막이 터지도록 따귀를 때려대거나 걸레자루가 부러지도록 아이들을 두들겨대는, 교도소보다도 나을 게 없던 고등학교 시절, 문예반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며 읽던 황석영, 조세희, 김승옥, 이청준, 최인호, 이제하의 소설들. 헌책방을 순례하며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하나하나 사모았던 《뿌리깊은 나무》... 그 시절 내가 읽은 책들은 나와 친구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준 진짜 스승이었다. 겁에 질려 있던 군대시절에는 문자중독에라도 걸린 듯 부대 안에 돌아다니는 진중문고, 대중가요 가사집, 휴가병들이 들고 오던 주간지까지도 읽고 또 읽었다. 이전에 회사에 다닐 때 점심시간이면 사무실을 빠져 나와 종로의 영풍문고나 명동의 세종서적까지 뛰듯이 달려가 서가를 기웃거리며 나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시민단체 상근자로 생활하며 야전의 참호가 이렇지 않을까 싶게 정신없이 지내는 요 근래 몇년 동안, 내겐 숨겨둔 애인이라도 만나러 가듯 달려가던 점심시간의 짧은 서점 산책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러나 시골로 이사하고부터는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모자란 잠을 벌충하기도 하고, 읽고 싶은 책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며 맛난 음식을 아껴먹듯 탐독하고 있다. 하루 두 번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두 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오가는 시간이 내겐 정말 소중한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집안을 이리저리 뒹굴며 책을 읽는 것 말고는 별다른 놀이가 없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도 소중하게 추억되길 바란다.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일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